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③	자유무역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사람이 규제 · 세금을 받지 않을 자유일 뿐이니, 그 말 뒤의 힘의 불균형을 보라는 주장. ④는 저자가 부정한 생각, ⑤는 앞의 비유일 뿐이다.
2	①	1인당 소 마릿수 · 2004년 추적 · 소고기 추출물 첫 대량 생산 — 소고기 산업의 정상 우루과이. ②는 추적 문장 뒤 문장(늘 가장 맛있다는 뜻은 아님)과 반대, ④ 리비히는 글에 없다.
3	②	관세 규칙은 개발도상국에 유리하지만 부자 나라의 돈과 소프트 파워 때문에 실제 관세는 평균 10% 안팎에 그친다. ③ '모든 분야'는 첫 부분(관세 규칙은 유리)과 어긋나고, ④는 둘을 견주지 않는다.
4	①	인구 350만의 나라가 두 번 우승한 것은 인구에 견주면 엄청난 성과라는 뜻. ②는 가정을 글자 그대로 읽은 오답, ⑤는 근거가 없다.
5	②	독립하자 영국이 이끄는 열강이 불평등 조약으로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 자유무역을 강요했다. ①은 정반대, ⑤ 독립한 뒤 오히려 자유무역을 강요당했다.
6	⑤	①②③④는 리비히(Liebig), ⑤는 철도 기술자 기베르트(Giebert).
7	②	1917년 여성 참정권 — 최초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 ① 세계가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최초 ③ 세계 최초 ④ 1973년에 시작해 1985년까지 ⑤ 정치범은 대통령이 되기 전 독재 기간의 일.
8	④	라틴아메리카는 1870 · 1880년대에, 일본은 1910년대에 자유무역을 버렸으므로 라틴아메리카가 먼저다(had done the same earlier). ⑤는 일치.
9	⑤	선행사 industries(복수) → were. ① Corn Laws를 꾸미는 과거분사 ② 과거진행 ③ grain ④ 결과의 분사구문.
10	⑤	(A) '불리는' 것 → called (B) 예전에 ~되었다 → used to (be carried out) (C) 뒤가 완전한 절(the grain market was once held) → where.
11	④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부자 나라 기업이라 이 규칙은 부자 나라에 '지나치게(disproportionately)' 이롭다 → equally는 반대. ① openly는 blatantly의 뜻으로 맞다.
12	①	1846년 폐지 뒤에도 1848년 1,100개 넘는 품목에 관세, 1860년에야 50개 미만 → 단번이 아닌 점진적 이행. ②는 정반대, ③은 라틴아메리카의 이야기다.
13	④	such a facility는 ④ 앞의 연구 개발 연구소를 받는다. ⑤에 넣으면 가리킬 시설이 없다.
14	③	반곡물법 동맹과 프리드먼의 해석 사이에 콘드 비프라는 이름의 유래(66쪽 ¶3)가 끼어들었다.
15	③	주어진 글(레므코 · 옥소) → (B) 추출물 성공 직후 통조림 콘드 비프 → (C) It did so = 싼 부위 · 통조림으로 → (A) As a result 노동자의 주식 · 군인과 탐험가의 식량.
16	①	WTO에서 모든 회원국은 같은(equal) 투표권을 갖지만 강한 나라는 여전히 체제를 자기 이익에 맞게 만든다(shape). ② unequal은 1995년 이후 WTO와 어긋난다.
서답형	BRISKET	(1) B 1847 (2) R Fray Bentos (3) I 1908 (4) S 1846 (5) K Richard Cobden (6) E more than 1,100 (7) T False → B-R-I-S-K-E-T. 완성 단어 brisket(양지머리 — LEMCO가 콘드 비프에 쓰지 않은 '제대로 된' 부위) — 자기 검증 장치. 함정: A. 1865 · C. 1862 · G. London · D. 1873 · H. 1815 · J. 1838 · P. John Bright · M. fewer than fifty · N. True.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이 업적이 놀랍긴 하지만, 축구가 우루과이가 뛰어난 유일한 분야는 아니다. (형용사 + though + S + V(양보))
→ **Incredible though this achievement is, football isn't the only field in which Uruguay has excelled.**

02 우루과이가 브라질만큼의 인구를 가졌다면, 두 번이 아니라 121번 우승했을 것이다. (혼합 가정법)
→ **If Uruguay had the population of Brazil, it would have won 121, not just two, Cups.**

03 우루과이는 모든 소를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첫 나라다. (the first + 명사 + to have p.p.)
→ **Uruguay is the first country to have made every single one of its cattle traceable.**

04 원료가 너무 비싸서 그의 추출물을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값으로 만들 수 없었다. (too + 형용사 + to V)
→ **The raw material was too expensive to make his extract affordable for most people.**

05 가장 시시한 이름을 가졌는데도 그 제품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despite + 동명사)
→ **Despite having the lamest name, the product was a major hit worldwide.**

06 통조림으로 만들어 LEMCO는 콘드 비프가 훨씬 더 오래가게 했다. (make + O + 동사원형)
→ **By canning it, LEMCO made corned beef last much longer.**

07 콘드 비프는 옥수수가 들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다. (not ~ because(부정의 범위))
→ **Corned beef isn't called that because it contains maize.**

08 꽤 많은 영국인이 역사 시간에 곡물법을 배웠을 것이다. (must have p.p.)
→ **Quite a lot of British people must have learned about the Corn Laws in their history lessons.**

09 영국을 진정한 자유무역 국가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은 1860년이 되어서였다. (it was only ~ that(강조))
→ **It was only by 1860 that Britain could be described as a truly free-trading nation.**

10 이 조약들은 약한 나라에서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 자유무역을 강요했다. (impose A on B / deprive A of B)
→ **These treaties imposed free trade on the weaker nations by depriving them of tariff autonomy.**

11 부자 나라는 힘을 써서 개발도상국이 관세 허용 한도를 다 쓰지 못하게 막는다. (prevent A from -ing)
→ **Rich countries use their power to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fully employing their tariff allowances.**

12 힘의 불균형을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나라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Only when + 절 → 주절 도치)
→ **Only when we understand the power imbalances can we understand why there are so many disputes between nations.**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최다 우승 / 이탈리아 우승 · 인구	브라질 5회 / 4회 · 6,100만(브라질 2억 1,200만)
우루과이 인구 / 우승 연도	350만 명 / 1930년(몬테비데오) · 1950년(리우)
브라질 인구라면 우루과이의 우승 횟수	121회
이혼 청구권 / 여성 참정권 / 마리화나 합법화	1912년 / 1917년 / 2013년
군사 독재 / 무히카의 대통령 임기(각주 ii)	1973~1985년 / 2010~15년
모든 소를 추적할 수 있게 함	2004년
소고기 추출물 발명 / 발명자	1847년 / 유스투스 폰 리비히
기베르트가 리비히의 발명을 앎	1862년
LEMCO 설립 / 장소 / 공장	1865년 / 런던 / 프라이 벤토스
옥소 큐브 / 통조림 콘드 비프 생산 시작	1908년 / 1873년
콘드 비프의 몫(1942년 4~9월 영국 고기 배급)	7분의 1
LEMCO 인수 / 가동 중단 / 세계유산(각주 v)	1924년 / 1979년 / 2015년
곡물법 도입 / 반곡물법 동맹 / 폐지	1815년 / 1838년 / 1846년
동맹을 만든 두 하원의원	리처드 코브던 · 존 브라이트
1848년 관세 품목 / 1860년 관세 품목	1,100개 넘게 / 50개 미만
라틴아메리카의 자유무역 채택 / 조약 만료	1810~1830년대 / 1870~1880년대
불평등 조약의 균일 관세율	보통 5%(낮게는 3%)
일본의 조약 체결 / 만료 뒤 공업 관세	1853년부터 / 평균 30% 안팎
미국 평균 공업 관세(1830년대~2차 대전)	35~50%
WTO 출범 / 개발도상국 실제 공업 관세	1995년 / 평균 10% 안팎
소의 생물량(각주 x)	사람의 1.5배 · 코끼리의 200배

4-3. 통합 사고 문제 – 5장과 8장을 잇는 자리

문제

5장에서 저자는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새 산업의 미숙한 생산자들이 더 크고 뛰어난 외국 경쟁자에게 금세 쓸려 나간다고 썼고(49쪽 ¶2), 오늘날 자유무역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도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였으며 산업의 우위를 이룬 뒤에야 자유무역을 받아들였다고 썼다(49쪽 ¶6). 8장에서 저자는 불평등 조약이 끝나자 일본이 갓 생긴 산업을 키우려고 공업 관세를 평균 30% 안팎으로 끌어올렸다고 썼고(68쪽 ¶2),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 · 북아메리카에서 스스로 무역 정책을 고를 수 있던 스무 나라 남짓 가운데 자유무역을 한 나라는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 몇 나라뿐이었다고 썼다(68쪽 ¶4).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의 나머지 자유무역 국가들이 어떤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했다고 저자가 보았는지 아래 68쪽 ¶4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 하나로 쓰고, 그 근거를 5장과 8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5장 또는 8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자유' 무역의 실상: All the other free-trading nations were doing so under _____, not out of free choice – weaker nat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under unequal treaties or the Asian and African colonies of European powers, which were forced into free trade with their colonial masters.

'자유' 무역의 실상: compulsion
근거 1 (예시): In 'Prawn – or Shrimp?', the author argues that Britain and the US were the most protectionist countries in the world in the earlier stage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adopted free trade only after they had achieved industrial supremacy.
근거 2 (예시): In 'Bee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were deprived of tariff autonomy by unequal treaties and allowed only a very low uniform tariff, whereas Japan, as soon as its treaties expired in the 1910s, raised its industrial tariffs to around 30% to promote its nascent industries.
채점: 빈칸은 원서 낱말 compulsion만 정답(force · coercion · pressure 등 뜻이 같은 말은 원서 표현이 아니므로 감점 또는 오답 – 학원 방침에 따라 명시). 단어(compulsion) + 5장과 8장에서 근거를 하나씩 들 것 + 5장 · 8장 어휘(infant industry, protection, tariffs, free trade, unequal treaties, tariff autonomy, nascent industries 등) 포함. 영국 · 네덜란드 · 스위스는 스스로 자유무역을 고른 나라이므로 강요된 쪽에 넣으면 감점. 68쪽 ¶1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자유무역의 개척자였다는 말은 '~였을지는 몰라도'(may have been)라는 양보이므로, 라틴아메리카를 자유무역을 스스로 고른 나라로 쓰면 감점. 5장 50쪽 ¶1처럼 유치산업 보호가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보호하기만 하면 늘 성공한다고 쓰면 감점. 5장 49쪽 ¶6이 'Beef'를, 8장 67쪽 ¶4 · 68쪽 ¶2가 'Prawn'을 서로 참조한다는 점, 또는 조약 만료 뒤 관세를 올린 일본(68쪽 ¶2)과 정부가 높은 관세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 5장의 일본(48쪽 ¶3)을 한 나라의 두 장면으로 이으면 가산.